



### 선원총림을 가다

1000년 전 그곳과 오늘 ⑩

범어(法語)와 그 종류

선종사원(총림)에서 주지(방장)의 범어는 매우 중요하다. 좌선과 함께 수행의 두 축으로서 참선자는 범어를 통해 지혜와 안목을 기르며 방법과 방향을 같이 잡아 나간다. 그러므로 주지의 범어가 올바른 견해(見解) 즉 정견(正見)과 정법안에서 나온 것인지, 아난지에 따라 인제가 배출되기도 하고 한낱 망상인이 나오기도 한다.

선원에서 수행자를 지도 교육하는 하는 시스템은 이와 같이 두 가지이다. 곧 좌선과 설법(범어)으로서 좌선을 통해서는 선정(禪定)을 축적해 나가고 설법(범어)을 통해서는 지혜를 갖춰 나간다. 이것을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 한다.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말인데, 그래야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우 체계적이며 합리적인 교육시스템이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림에서 설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는 사실은 설법 장소인 법당(法堂)이 불상을 모신 불전(대웅전)보다 훨씬 더 크다는 데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이것도 송대에 와서일 뿐, 그 이전에는 불전 자체를 두지 않았다. 큰 당우는 오로지 선당과 법당만 있었다. 기능적으로 깨달은 부처를 만드는 곳은 좌선당과 법당이고 불전(대웅전)은 조식으로 예불하는데 그쳤기 때문이었다.

선원총림에서 행해진 범어의 종류를 조사해 보면, 상당범어(上堂法語)·조참(朝參, 早參)·만참(晚參)·소참(小參)·보설(普說) 등 다섯 가지인데, 이 가운데서도 가장 규모가 크고 격조 있는 법문이 상당범어이다. 상당범어를 비롯한 모든 범어는 주지(방장)가 해야 할 고유한 책무 가운데 하나이다. 출타 중이거나 건강상 이유, 혹은 권위 상태가 아니라면 빠트릴 수 없다.

#### 범어는 방장·주지 고위 책무

#### 출타 등 외에는 빠트려선 안돼

상당범어(上堂法語)란 '법당(堂)에 올라가서(上) 행하는 범어(法語)'라는 뜻이다. 선원의 모든 대중이 참어(參詣)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참법문(大參法門)이라고도 한다.

1000년 전 당송시대 총림에서 정기적으로 상당범어를 하는 날은 매달 1일·5일·10일·15일·20일·25일로서 한 달에 여섯 번 있었다. 5일 마다 한번씩 있었다고 하여 '5참상당(五參上堂)'이라고도 한다. 5일에 한번씩 설법했던 것은 당시 정부 조정(朝廷)에서 5품 이상의 관리가 5일마다 한번씩 조회를 열어 천자를 배알하고 교지(敎旨)를 받던 것을 본 딴 것이다.

5참상당은 남송 이후에는 점점 횟수가 줄어들어서 포살일인 초하루(1일)와 보름(15일) 두 차례만 행해졌는데, 후대로 갈수록 그만큼 스승이나 제자 모두의 근기가 약해졌음을 말해준다. 오늘날

우리나라 선원에서는 겨우 결제·해제 때만 행한다. 조실이나 방장이 없는 선원은 그마저 생각한다고 한다.

상당범어는 아침 공양 후(粥罷)에 한다. 상당범어가 있는 날 대중들은 공양 후 흠어들지 않고 그대로 승당에 앉아 있는데, 곧이어 고루(鼓樓)에서 북(鼓)소리가 나면 수석 선승인 수좌는 대중을 이끌고 법당으로 올라가서 양쪽으로 도열해 선다. 이것을 안립(雁立) 또는 안행(雁行)이라고 하는데, 기러기가 날아갈 때 줄을 지어서 날아가는 모습과 같기 때문이다(徒衆立雁行立側聯).

도열하는 순서는 먼저 서서(西序)인 수좌와 서기(書記)·장주(藏主, 知藏)·지각·육주(浴主, 知浴) 등 두수(頭首)들이 서쪽에 각각 1줄씩 만들어 선다. 이어 두 번째 북소리에 맞춰 동서(東序)인 감원·유나·전좌·직세 등 지사(知事)들이 동쪽에 각각 1줄씩 만들어 선다. 다음 두수와 관련된 소직(小職)은 두수 쪽에, 지사와 관련된 소직은 지사 쪽에 선다. 그 나머지 대중들은 동서 구분 없이 차례로 줄을 지어 선다. 전임 주지 등 원로들은 수좌보다 뒷자리에 선다. 행자들은 맨 끝에 서고 신도들은 지각 뒤쪽에 선다. 동서(東序)인 지사들과 서서(西序)인 두수들은 서로 마주 보고 서는데, 양쪽을 모두 합하면 10여 줄 이상이 된다. 사극(史劇)을 보면 조정(朝廷)에서 조회(朝會)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5일에 한번씩 범문을 듣는 5참상당도 마찬가지이지만, 동서로 구분해 도열하는 것도 조례(朝禮)를 모방한 것이다.

세 번째로 북소리가 울리면 시자(侍子)는 방장실로 가서 주지에게 보고한다. 주지가 법당으로 들어오면 대기하고 있던 대중은 모두 합장하고 예의를 갖춘다. 다음 주지가 법좌에 올라 의자 앞에 서면 가장 먼저 시향시자(侍香侍子, 燒香侍子, 비서실장격)가 선 채로 합장 배례한다. 이것을 문신(問訊, 합장 인사)이라고 한다. 이어 수좌와 서기 등 두수와 대중들이 문신하고, 다음에는 감원, 유나 등 지사가 문신하고 선다. 끝으로 사미와 행자, 신도들이 합장 배례하면 비서실장 격인 시향시자가 대중을 대신해 삼배하고 법을 청한다. 청법계 등 청법 의식이 끝나면 주지의 설법이 시작된다.

상당범어는 종래의 고칙이나 공안을 들어서 수시(垂示, 제시하는 것)한다거나 또는 새롭게 공안을 제시한 다음 주지가 시구로 짧게 부연 설명하는 형식인데, 그것을 착어(着語, 코멘트)라고 한다. (임제록)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범어는 간결 고준(高峻)해서 교학적인 설명이나 군더더기 같은 말은 넣을 수가 없다.

모든 대중들은 상당범어를 의무적으로 듣게 돼 있다. 다만 중로(衆寮, 큰 방, 대중방)를 지키는 요주(寮主)와 직당(直堂, 당직)만 예외일 뿐, 그 외 대중으로서 참석하지 않을 경우 벌칙이 가해진다. 그리고 모든 대중은 주지가 법좌에 앉은 이후에는 법당



방장의 범어는 수행의 한 축이다. 사진은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이 2007년 동안거 해제 법회에서 법문하는 모습.

으로 들어 올 수 없다. 만일 부득이한 일이 있어서 늦게 들어올 경우 옆문으로 요령껏 살짝 들어와야 한다.

법당에서 상석(上席)은 법좌 즉 법상 가까운 곳이다. 법좌는 법당 안쪽 즉 불상을 모신 곳과 같은 위치에 있는데(참고로 법당 안에는 불상 등은 일체 없음), 법좌의 높이는 약 2미터 가량 된다. 길이 2미터씩의 사방에는 난간이 설치돼 있으며 전면과 양쪽에는 올라가는 계단이 있다. 크기에서 차이가 있을 뿐, 모양과 형태는 군주가 앉는 옥좌(玉座)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상당범어의 소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알 수 없다. 모든 대중이 선 채로 듣고 또 (임제록) 등에서 본다면 그다지 길지 않다. 아마 30분~1시간 정도 이내였을 것이다. 범어가 끝나면 주지는 대중들

#### 간결 고준한 상당범어 후에는

#### 대중에 '구립진중'이라 인사

에게 상례적인 인사말로 '구립진중(久立珍重)'이라고 한다. "오래도록 서서(久立) 범문을 듣느라고 수고 했습니다(珍重)"라는 뜻이다. '구립진중' 또는 그 준말인 '진중'이라는 말은 (임제록)에도 자주

나온다(喝一喝云, 小信根人, 終無了日, 久立珍重. (임제록) 1단).

상당범어의 종류는 많은 편이다. 한 달에 여섯 번 행해지는 정기적인 상당범어 외에도 하안거 결제날에 하는 결하상당(結夏上堂), 해제날에 하는 해하상당(解夏上堂), 성도절(12월 8일)에 하는 남팔상당 등 10여 종 이상이나 된다. 간단히 그 종류를 열거해 보도록 하겠다.

결하상당(結夏上堂) : 하안거 결제를 시작하는 날인 음력 4월 15일에 하는 범어이다.

해하상당(解夏上堂) : 하안거 끝내는 날 즉 해제일인 7월 15일에 행하는 범어이다.

단망상당(單望上堂) : 초하루를 '단(旦)'이라 하고, 보름을 '망(望)'이라 한다. 즉 초하루 날과 보름 날에 행하는 범어로서 삭망상당(朔望上堂)이라고도 한다.

단오상당(端午上堂) : 음력 5월 5일인 단오날에 행하는 범어이다.

월석상당(月夕上堂) : 8월 15일 추석날에 행하는 상당 범어이다.

세단상당(歲旦上堂) : 세단(歲旦)은 원단(元旦)과 같은 말로서 세조상당(歲朝上堂)이라고도 한다. 정월 초하루 날에 행하는 범어이다.

이상에서 정기적인 상당범어와 날짜가 겹치는 경우는 하루에 한 번 범어를 한다.

남팔상당(臘八上堂) : 성도절인 음력 12월 8일에 행하는 상당범어.

육불상당(浴佛上堂) : 4월 8일 불탄일에 행하는 범어.

개로상당(開爐上堂) : 음력 10월 1일 승당에 화로를 설치한 다음에 행하는 범어.

폐로상당(閉爐上堂) : 2월 1일 화로를 철거하고 나서 행하는 범어.

인사상당(因事上堂) : 어떤 일을 계기로 상당해 설법하는 것.

퇴원상당(退院上堂) : 선종사원의 주지가 그 직책을 그만두는 것을 퇴원이라고 한다. 주지로서 마지막으로 행하는 고별(告別) 범어이다.

개당설법(開堂說法) : 원래는 선종사원을 창건하고 난 다음 처음 법당 문을 활짝 열고 행하는 범어를 가르쳤으나 후대에는 주로 주지(방장)가 부임하는 날, 즉 진산시 날에 행하는 범어를 일컫게 됐다.

그 밖에도 황제의 생일 날에 하는 성절(聖節)상당 범어, 개산조사의 기일(忌日)에 행하는 상당범어 등 몇 가지가 더 있으나 생략한다.



윤창화 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hanghw9@hotmail.net

#### 전선(케이블) \_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저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저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찬덕불교가 개발 한 LED 인등 · 영구위패

※ 기존 전기요금의 10%정도만 소요됩니다.



봉녕사 인등



용학사 목련관 위패

## 아름다운 등



공단등



오색공단등



만월등



팔각점등



종등

※ 주름등 · 종등 주문 받습니다. (사찰명 인쇄)

#### 신상품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1. 내열 ABS  
내열특성 : 연화점온도가 100~120 °C로 우수한 내열특성을 가지고 있다.  
연화점이란 (물질이 가열하여 변형되는 온도)

충격특성 : 내열성과, 내충격성 등의 물성 밸런스가 우수하다.

2. 경제성 비교

종 류	일반전구	찬덕 LED 전구
소비전력	10W	2W
효율	10 lm/w	50 lm/w
연간전기로	2146원	429원
수명보장		30,000 시간

3. 기존 전구에 비해 잘 깨지지 않는 재질의 커버적용으로 파손의 위험이 적다.  
4. 발열이 적어 기존 전구처럼 뜨겁거나 다칠 염려가 없습니다.  
5. 전기가 절감 되고 교체하는 번거로움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찬덕불교

경기도 광주시 신흔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